

## 편집후기

### 박경완

실험실에서만 보이었던 플라즈마가 의학 분야에서 요긴한 기술로 자리잡아가고, 농식품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'특집' 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. 이는 미래 과학기술이 현재 이질적 기술 분야 사이에서 점점 더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,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주변 분야 또는 아주 먼 거리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새로운 창조융합 분야가 활발하게 생성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. (kwpark@uos.ac.kr)

### 류미이

4호 출간을 위해 노력하신 편집위원님들과 소중한 원고를 작성해주신 저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. (myryu@kangwon.ac.kr)

### 고중희

진공이야기가 매력하나마 우리나라 진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날로 발전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. (johnny0604@hanmail.net)

### 김남미

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겨우 겨우 참석했는데 편집위원들의 열정이 추위를 혹 거두어 가셨네요.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(nammee@ssu.ac.kr)

### 박민

새롭게 편집위원이 되었음에도 아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 홍보잡지의 충실한 내용과 수준에 놀라움을 느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(mpark@kaeri.re.kr)

### 박종도

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글을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더욱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. (cdp@postech.ac.kr)

### 안승규

새로운 <진공 이야기> 편집 및 발간에 힘써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다음번에는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(notask@kier.re.kr)

### 엄대진

편집위원으로 첫 교정을 보면서 저자들의 성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글들을 빨아들이는 진공이야기길 바랍니다. (d.eom@kriss.re.kr)

### 이인호

의미 있고 뜻 깊은 원고 보내주신 저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. (ihlee@kriss.re.kr)

### 이석호

새로운 <진공 이야기>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. (sukholee@gei.re.kr)

### 이주한

2015년 한해 무사히 잘 지나갔고 <진공 이야기>도 많이 자랐습니다. 다들 수고 많이 하였고 2016년 더 알찬 <진공 이야기>가 되길 희망합니다. (jouhahn@kbsi.re.kr)

### 이현수

진공학회 사무실에 모여서, 진공학회 편집위원장님의 열정적인 진행 가운데 <진공 이야기>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(a123@kist.re.kr)

### 이현복

새로이 <진공 이야기>의 편집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. 진공은 응용물리 분야에서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<진공 이야기>가 점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<진공 이야기>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(hyunbok@kangwon.ac.kr)

### 이홍석

<진공 이야기> 2권 4호에 좋은 글을 작성해주신 저자 분들과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. (hslee1@jbnu.ac.kr)

### 임동건

<진공 이야기>가 나온 지도 만 2년이 지났습니다. 때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여 좋은 잡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(dglm@ut.ac.kr)

### 장문규

새로이 <진공 이야기> 편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알차고 읽을거리가 많도록 열심히 봉사 하겠습니다. (jangmg@hallym.ac.kr)

### 전철호

이번 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. 좋은 잡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(cjeon@kbsi.re.kr)

### 조복래

새해 첫 <진공 이야기>! 기쁜 마음으로 읽으며 편집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(blcho@kriss.re.kr)

### 조상완

2015년 마무리하는 <진공 이야기>가 나왔습니다. 이번 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. 새해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의 <진공 이야기>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(dio8027@yonsei.ac.kr)

### 주장현

새해에도 <진공 이야기>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<진공 이야기>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. (jh.joo@edwardsvacuum.com)

### 채희엽

IVC-20 준비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홍보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새해에는 IVC-20과 <진공 이야기>를 통하여 한국진공학회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<진공 이야기> 영문판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 (hchae@skku.edu)

### 최희환

추위를 이겨내는데 <진공 이야기>가 한 몫 하길... (choehh@kau.ac.kr)

### 홍태은

<진공 이야기>는 첨단 분석분야의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고하신 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(tehong@kbsi.re.kr)

2015 12 December  
제2권 제4호 ISSN 2288-971X

# 진공 Vacuum Magazine 이야기

제2권 제4호 ISSN 2288-971X

| 발행인 | 강희재

| 편집인 | 박경완

| 발행일 | 2015년 12월 30일

| 발행처 |  사단법인 한국진공학회  
The Korean Vacuum Society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

대중빌딩 710호 (우) 135-527

Tel 02-567-9486 Fax 02-556-5675

E-mail kvs@kvs.or.kr

Homepage http://www.kvs.or.kr

| 편집 및 인쇄 | 좋은생각좋은사람들 (031-902-3105)